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 소식

2015
Vol. 241

05



양양군
YANG YANG GUN

발행일 2015년 5월25일 발행인 양양군수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발행처 양양군 Tel(033)670-2223 / Fax(033)670-2276

www.yangyang.go.kr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신청

강원도 등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신청서 제출

친환경 · 경제성 담보 추진계획...오는 7월 최종 발표



지난달 29일 환경부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관계자들은 세종시를 찾아 환경부에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460억원을 투자해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일원인 서면 오색~끝청간 3.5km 길이에 중간지주 6개를 설치해 오색케이블카를 운행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오는 7월경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올해 실시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시설공사를 실시해 2017년 11월~2018년 1월까지 시운전을 끝내고 2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3년 기준 연간 335만명 이상이 설악산을 찾고 있는데, 정상등반 탐방객도 45만명에 이르러 탐방로가 훼손되고 있어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설악산 탐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환경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16개 노선을 검토한 끝에 환경성을 가장 잘 살린 오색~끝청구간을 최종 대안노선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이 노선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과 오고산

식생대, 백두대간 마루금 등 보호지역을 회피한 곳으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출현빈도가 낮고 번식을 비롯한 주요 서식지가 아닌 이동경로로 환경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과 1.4km 떨어진데다, 기존 탐방로와 단절돼 있어 정상통제 방안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계획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지주를 6개로 축소하고 각종 건설 자재는 하부에서 조립해 헬기로 운반할 예정이다. 또 공사시점부터 생태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8년간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적 변화 및 생태영향을 조사 분석하기로 했다. 설악산의 환경훼손 복구·복원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운영수익의 15%를 환경관리기금과 야생동물 보호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국제공항의 이용객 증가와 맞물려 생산유발효과 1,07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43억원, 고용유발효과 933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하 군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규제 완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관광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군축제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

송이축제-10월1~4일 · 연어축제-10월23~25일 개최 확정



양양송이축제와 연어축제의 통합 위원회로 출범한 양양군축제위원회가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양양송이축제와 연어축제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축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진하 군수와 축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올해 양양송이축제는 10월1~4일까지 4일간, 연어축제는 10월23일~25일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김정중 군의원이 초대 양양군축제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으며, 정준화 변영희장이 감사로 임명됐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양양송이축제는 '송이, 양양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주 무대인 남대천 둔치와 양양전통시장 · 송이산지 · 송이밸리 등지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주요 행사로 산신제와 축하공연 등 개막행사를 비롯해 매년 인기를 끌고 있는 외국인 송이채취현장체험 및

송이보물찾기와 문화예술행사, 맛 체험, 상설 및 거리행사 등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그동안 20일간 운영했던 외국인 송이채취현장체험 및 송이보물찾기를 축제기간 중 4일간으로 단축해 열기로 했다.

송이보물찾기용 송이버섯은 양양산 4등급을 사용하되, 물량이 부족하면 5등급도 사용하기로 했다. 또 송이보물찾기 행사장 포토존 설치, 행사장 내 송이판매 업체 실명제 도입, 외국인 모객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제외, 야간공연 추진, 표고버섯 따기 체험, 거리 퍼포먼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어축제는 '연어를 따라 떠나는 생명의 여행'을 주제로 남대천 둔치와 부대행사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축제위원회는 올해 연어축제기간에 강원도의 GTI(광역 두만강개발계획) 국제박람회가 인근 속초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예전보다 많은 관광객 및 외국인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도 용왕제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맨손잡기체험을 비롯해 연어뜨기체험, 재첩체험, 양양연어OX퀴즈, 자전거 천천히 타기대회, 멸치후리기 등 6개의 현장체험행사가 열리고 맛 체험, 문화행사, 33개의 상설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 행사로 야간공연과 불꽃놀이 등을 추가했다.

양양군축제위원회는 앞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어 통합 축제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양양서 국제 한류어울림 한마당축제

국내외 대학생들 전통문화 · 시장체험

가정의 달을 맞아 외국인 및 국내 대학생 400여명이 지난 8~9일 이틀간 우리군을 찾아 '국제 한류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외국인 대학생 100여명을 비롯해 중고생 100명, 학부모 200여명 등 400여명으로 구성된 한류어울림 축제단은 낙산해변의 문화공연을 관람한 뒤 송천리 떡마을과 명지리 한과마을에서 전통체험을 하며 우리 지역의 문화를 만끽했다.

이어 양양연어사업소를 찾아 연어방류사업을 견학한데 이어 토요시장이 열린 전통시장도 탐방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군과 김천수 재경양양군민회장의 주선으로 국제교류추진단(단장 동국대 김익기



교수)과 한국청소년 희망드림이 주관해 진행됐다.

군은 이번 행사를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문화봉사활동과 연계해 글로벌 홍보마케팅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담장 허물고 '열린 청사' 준비

우리군 청사 주변 정비사업 시작

우리군이 '열린 청사'를 만들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3일부터 7월11일까지 사업비 2억5,500만 원을 투입해 청사주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은 정문을 이전하고 담장을 철거해 개방청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양양도서관 옆 국도 44호선 접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사전 교통사고 방지 등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군은 청사 담장 옹벽은 완전 철거하고 옛날 양양성처럼 고풍스런 성각석을 설치해 고풍미를 보여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군청 정문과 같은 방향의 정문이 새롭게 조성되는 데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요청

강원도, 양양서 간담회 열어 의견수렴 "지역제한 및 수의계약 활성화" 주문

강원도와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및 강원지방조달청이 공공기관의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업체들의 의견을 모색하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관계기관들은 지난 21일 우리군과 고성군,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초청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일양 김옥화 회장은 "시군의 행정지도를 통해 지방자치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라 물품계약 공고 시 철저한 지역제한을 시행해 지역업체를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뤄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윤홍식 강원콘크리트(조) 이사장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민간기업과 지역제품 우선 구매 MOU체결 등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동한 강원농공단지협의회장은 "각 지자체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주)해송KNS 이미옥 대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경우, 여성구매제품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발주금액의 5%이상 의무화 및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활성화 등 구매실적 이행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원도와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및 강원지방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정
소식

선진의회 구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지지 성명

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조건”



우리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강원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2018평창겨울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양양군은 지난 2차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 사업지 선정 부결 결정 이후 공청회를 통해 최적합 노선인 오색~끝청 구간을 선정하고 친환경 설계와 공법으로 환경성을 다시 보강해 재선정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산행 외엔 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다, 한발 한발 걸어서 산을 오르내리면서 생기는 답압으로 더 많은 환경파괴가 있었다는 사실은 설악을 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며 “개발은 무조건 환경파괴라는 논리가 경제 활성화를 막고 있기에 환경을 지키면서 자연도

잘 활용하고 천연자원을 관광서비스로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고 케이블카 운영 수익을 통한 환경 투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관광자원이나 경제 논리와 함께 환경의 가치, 즐길 권리와 접근성 등 다양한 시각에서 보아야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산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케이블카”라며 “따라서 자연을 무조건 개발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이기심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색케이블카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균형과 조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설악권 관광경기를 살리면서 2018 평창겨울올림픽 개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친환경 오색케이블카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랑의 점심나누기 운동 어려운 아동 · 에티오피아 돕기



월드비전 양양지회가 주관한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이 지난달 23일 열려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이날 군청 광장에서 열린 2015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 캠페인에는 김진하 군수와 최흥규 의장, 장석삼 강원도의원 등 관계자들과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정성 어린 성금을 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희망의 죽, 긴급 영양 죽 체험을 비롯해 아동들의 노동 반대 서명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희망의 학교 제막식 퍼포먼스도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모금된 성금은 에티오피아 식수시설 건립 지원을 비롯해 양양관내 위기가정 아동 교육비 및 생계비로 지원되고 저소득층 원아의 교육비와 결식아동 · 노인들의 도시락 지원에도 사용된다.

사과나무 1그루 갖기 분양 농업기술센터, 관내 어린이 대상



우리군농업기술센터가 낙산배 1그루 갖기 체험에 이어 농심(農心)을 전할 수 있는 '사과나무 1그루 갖기' 이색체험을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21개교 어린이들에게 자체 개발한 홍로 등 11개 품종(60주)을 분양할 계획인 가운데 1그루당 5만원으로 30kg정도가 수확된다.

사과나무 주인이 된 어린이들은 성장에 따른 변화에 맞춰 소망 명패달기, 열매숙기, 봉지 씌우기, 병충해 관찰, 수확 체험 등 사과나무의 성장과정에 따른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내 사과나무 한그루를 어린이가 '내 나무'로 등록해 자신이 직접 관리해 자연학습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자칫 편협하게 자랄 수도 있는 어린이들이 자연체험을 통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담당 670-2368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우리군새마을회, 80세대에 전달

우리군새마을회(회장 이주호)가 지난달 24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쳐 미담이 되고 있다.

새마을회는 이날 회관 광장에서 새마을부녀회원과 양선회원 등 20여명이 직접 정성을 깃들인 고추장을 담가 다문화가정 50세대와 조손가정 30세대에 전달하며 용기를 북돋았다.

이주호 양양군새마을회장은 "사랑의 고추장이 봄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의 입맛을 돋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기양양(襄陽) 토요시장’ 개장



지난달 25~26일 산나물축제와 함께 막올라

토속상품·특별공연 만끽...해결과제도 적잖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첫 시행한 주말장인 ‘의기양양(襄陽) 토요시장’이 산나물축제와 맞물려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달 25~26일 이틀간 첫 토요시장의 개막을 겸해 개최한 산나물축제는 봄을 맞아 1만여명의 인파가 북새통을 이루며 양양의 봄 향기를 전했다.

산나물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설악산을 비롯한 우리지역의 산골에서 갓 채취해온 산나물로 대형 함치에 비빔밥을 먹으며 완연한 봄을 만끽했다.

또 장날이면 시장에서 마주하는 반가운 얼굴끼리 읍·면 대항 줄다리기를 비롯해 제기차기 대회,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산나물 즉석 경매, 산나물 할머니 장터 등 양양의 봄 산나물을 주제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려 인기를 끌었다.

이날 산나물축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토요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신토불이 상인 100여명이 고정적으

로 참여한 자리를 만들어 토속상품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카페와 프리마켓 등 체험거리 개발과 기념사진 찍기 촬영장소의 관광명소화도 강화해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말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0회의 문화·예술공연에 양양시장사업단이 추가로 20회의 특별공연도 준비하고 있어 올해 양양전통시장을 찾으면 매번 특별공연을 즐기며 풍요롭게 시장쇼핑을 즐길 수 있다.

매주 토요일 개장하는 주말시장이 자리를 잡을 경우, 매주 평균 3~4천여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시장상인 및 신토불이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연계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문의 경제도시과 전통시장담당 670-2955

우리농 농협발전상생협의회 개최

지역농협과 연계 사업정보 교환 등 추진

NH농협양양군지부(지부장 지은환)는 지난달 21일 양양농협, 서광농협, 하조대농협, 강현농협, 속초양양축협 등 지역농협 간부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군농협발전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앞으로 계통사업 부문별 사업정보 교환을 비롯해 농업인 실익제 공 사업 확대를 위한 계통 조직의 소통과 상생 및 역량 결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은환 지부장은 “지역농협과의 상생을 통해 우리농



촌과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 '양심저울' 설치

3곳에 마련...고객신뢰 확보

양심저울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양심저울'을 설치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고객들의 왕래가 잦은 삼해건어물 앞과 BYC 옆 상가 출입구, 양양가방 옆 아케이드 내에 3개의 양심저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산나물 등의 중량이 맞는지 양심저울에 달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전통시장 상품이 대부분 눈대중으로 판매되다 보니, 간혹 중량이 미달되는 경우도 발생해 고객들의 신뢰를 위해 양심저울을 설치하게 됐다.



관광객들은 "전통시장에 양심저울이 등장하니까 다소 어색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게 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년고찰 낙산사(주지 도후스님)가 지난해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중 최우수 운영 사찰로 선정됐다.

조계종 템플스테이사업단은 최근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지난해 템플스테이 운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낙산사의 템플스테이가 가장 특색 있는 테마로 운영돼

낙산사, 전국 최우수 템플스테이 사찰 선정

조계종 템플스테이사업단 평가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최우수 사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낙산사는 불교 대중화와 현대인들의 안식처 제공을 위해 도후 주지스님 취임 후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연중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낙산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이들은 명상과 사찰문화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고 의상대 등 오봉산 숲속을 거닐며 자연과 함께 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산복지재단 어린이날 책 전달

관내 17개 초교 학생·교직원 1,367명에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무산복지재단(이사장 정념스님)이 어린이날을 맞아 양양지역 어린이들에게 도서를 전달했다.

무산지역아동센터는 지난날 29일 양양관내 17개 초등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총 1,367명에게 학년별 권장도서 및 교직원용 책을 지원했다.

이날 도서를 전달한 지봉스님은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도 책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



리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어린이들의 교양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했다.

제9회 양양읍민의 날 행사 성료

주민화합 · 지역발전 도모...올부터 체육대회로

제9회 양양읍민의 날 기념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1일 양양읍 승격 제36주년을 맞아 남대천 둔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양양읍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호영 이장협의회장)가 주최하고 이장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문귀길), 양양읍사무소가 준비한 이번 체육대회는 예년과 달리 행사위주에서 벗어나 체육활동을 통해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육대회는 양양읍 주민들과 노인회, 기관 단체회원 등 1천여명이 참가해 송이팀, 능이팀, 연어팀, 황어팀 등 4개 팀으로 나눠 족구, 피구, 줄다리기 등 체육활동과 노래장을 통해 화합의 장으로 승화됐다.

또 식전행사로 열린 공로자 시상식에서는 김상영 기정리장이 지역봉사에 기여한 공로로 양양군수 표창을, 정



순자 화일리 부녀회장이 어르신 복지증진 공로로 의장 표창, 양양읍장 표창에는 최돈길(조산리, 경로효친)·박진화(남문2리, 효부) 씨가 각각 받았다.

김호영 추진위원장은 “양양읍민이 한자리에 모여 읍 승격을 기념하며 주민들이 화합하고 읍 성장 발전의 원동력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SNS 활용 지역홍보 마케팅 강화

페이스북 등 팬 2만5,000명 목표



올부터 SNS를 활용한 지역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지역에 산재한 관광·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관광객들의 지역방문을 유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활용해 홍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인터넷 판매망인 ‘양양몰’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이를 연계한 지역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페이스북 운영활성화를 통해 2만5,000명의 팬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1만6,476명을 확보한데 이어 1일 2건의 정기적인 콘텐츠 등록, 생활정보, 양양 관광 홍보 콘텐츠 위주로 게시하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팬은 서울시가 6,726명으로 가장 많이 등록돼 있다.

연말까지 2만명의 팬 확보를 목표로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운영해 게시물 공유를 유도하는 한편, 각 부서별로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한 온라인 이벤트 개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이벤트 주기적 실시, 양양몰을 통한 경품지급으로 지역농산물의 적극 홍보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내 중학생 국제교류 지속 추진

양양교육지원센터서 국제교류 담당자들 협의



양양교육지원센터(센터장 김태순)는 지난달 23일 교육청 국제교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군 협력 학생국제교류 지원사업 추진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우리군의 중학생 국제교류사업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도 관내 중학생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양양군에서 지난해 5천만원을 지원해 추진한 양양관내 중학생 14명의 뉴질랜드 국제교류 체험연수가 참가 학생들의 글로벌화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통음식 배우기 열기

전통음식학교 72명...지역음식 홍보 앞장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전통음식학교가 전통과 퓨전을 접목한 다양한 요리를 배우려는 참가자들의 열기 속에 인기를 끌고 있다.

전통식문화의 우수성 확산 및 녹색 식생활 지도자 양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2015년 양양전통음식학교는 현재 72명이 다양한 전통음식을 배우며 지역음식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 전통음식은 전통식문화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절기음식 상차림, 우리떡·한과, 전통주와 음청류 등 3개 과정을 통해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현대식재료와 접목해 퓨전음식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절기음식 상차림과정 교육생 안매리 씨(강현면 물갑리)는 “세시풍속에 맞춰 먹을 수 있는 절기음식 뿐만 아



니라 음식을 보다 맛있고 품미 있게 스타일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통주와 음청류과정 교육생 문종란 씨(현남면 포매리)는 “그동안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를 상품화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우리지역의 대표 전통주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행복한 우리 이웃

행복한 노후생활의 도움터인 현산요양원에서는 요양원 개원 이래 지금까지 현산요양원을 이용하시던 어르신께서 100세를 맞이하는 기쁜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예음민요단 공연 및 양양적십자봉사회 사물놀이공연과 현산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로 이용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함께 앞으로도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실것을 다짐하였다.



제2그린농공단지 마침내 준공

분양면적 6만744㎡...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우리군의 제2그린농공단지가 8년 만에 준공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오후 2시 양양읍 포월리 산 40번지 포월농공단지 주변 현지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입주기업 유치에 들어갔다.

제2그린농공단지는 분양면적 6만744㎡로 굴뚝 없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식·음료 제조업 11필지, 목재 제조업 4필지로 제한했다.

분양가는 1㎡당 10만5,125원으로 3개 필지는 이미 분양됐으며, 식·음료 3개 업체가 이달 중 추가계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흥교 기업지원담당은 “내년 동서·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의 접근시간이 1시간30분 정도로 단축돼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량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도시과 기업지원담당 670-2124



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다.

어린이날행사위원회(위원장 최종익)는 지난 5일 남대천 송이조각공원에서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드림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펼쳐지는 축제는 다채로운 체험과 특별공연, 레크레이션 등이

“꿈과 희망 부르며 맘껏 놀았어요”

제93회 어린이날 드림페스티벌 성황

진행됐다.

올해 어린이날 축제는 팝콘과 솜사탕, 쿠키 등 푸짐한 먹을거리가 준비되고, 투호놀이, 공굴리기, 훌라후프,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게임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신발 멀리 던지기, 가족사진 촬영, 비누방울 만들기, 협동화 그리기, 꽃묘목 나눠주기, 119소방안전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과 마술공연, 태권도시범, 양수발전소 에너지체험 및 홍보관 견학이 특별히 마련돼 재미를 더했다.

학생들 정신건강 증진 모색

양양교육지원센터서 한울타리협의회 개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양양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초중고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한울타리협의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한울타리협의회에는 문선옥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비롯해 이재윤 양양군 희망복지지원담당, 전경희 양양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김영숙 속초시 건강지원센터 담당, 김지성 법무부 속초 법률상담터 변호사 등 관계기관장 15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정신건강 증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양양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한울타리협의회는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시스템 구축 △정서·행동 문제 예방과 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구축 △학교폭력 징후 및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학교-지역사회 및 관계부처 공조체제 구축 통한 학생정서·행동 발달 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수동골상여소리 기능보유자 선정

김용우씨 “전통소리 후학 양성 길 열려”

수동골 상여소리의 전승자인 김용우(69) 씨가 수동골 상여소리의 기능보유자로 선정됐다.

김 씨는 최근 강원도가 개최한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도무형문화재 제25호인 ‘수동골 상여소리’의 기능보유자로 인정됐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현남면 수동골 화상천 주변 마을에서 불려지던 만가(輓歌)로, 밀양두라는 상두계에 의해 치러지는 전통장례식을 재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선드레 놀이와 초초소리, 하직소리, 상여 가는 소리, 산이나 언덕 넘어가기, 외나무다리 건너



기, 끊어진 다리 건너기, 회다지, 달구지소리 등 짜임새 있는 연출과 우수한 기량으로 지난 2013년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됐다.

김 씨는 “이번에 기능보유자로 인정돼 앞으로 후학양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수동골 상여소리의 전승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들 직업체험 호응

양양양수발전소 강현중학교 대상 실시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소장 김주호)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직업체험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양수발전소는 지난달 22일 강현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일터체험 활동 시간을 갖고 홍보관(양양에너지팜)에서 3D영상 상영과 양수발전의 원리를 설명한 후 지하발전소를 찾아 실제 발전소업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통문화 이끌어 나갈 차세대 주역들”

양양문화원 신정원 · 윤진희 씨 실무 배우기 구슬땀

“우리고장의 찬란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고 싶습니다.”

양양문화원에서 오누이처럼 다정하게 근무하고 있는 신정원(29) · 윤진희(25) 씨는 신세대지만 여느 젊은 층들과는 달리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혀 널리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입사한 신정원 씨는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양양현산문화제 지원과 사진반을 맡아 실무능력을 배양하며 차세대 양양문화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강원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올해 입사한 새내기 직원 윤진희 씨는 강원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와 통기타와 사물놀이, 한글서예 등 9개의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전통문화 배우기에 여념이 없다.

어릴 적부터 역사를 좋아했다는 그는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현재 강원도 대회로 열리고 있지만 장차 전국대회로 격상돼 전주대사습놀이 이상의 명성을 알릴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양양문화원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신정원 · 윤진희 씨는 선배들의 지혜와 경험에 더해 신세대의 빠른 감각을 전통문화에 접목시키며 내년이면 정명 600주년을 맞는 전통예향 고장인 양양군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첨병역할에 여념이 없다.



강원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발족

문화재지킴이 활동 돌입, 정념 스님 참가자들 격려

불교 청소년단체인 강원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회장 정념스님)가 지난 9일 양양실내체육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 및 한마음운동회에는 정념스님과 무문스님(사무총장), 김종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도내 초·중·고 34개교 500여명의 학생들과 500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문화재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고로 지역사회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다”며 “파라미타 회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첫 모내기 실시

정암리·상양혈리 두 곳서...고품질 해뜨미 생산 목표

올해 첫 모내기가 지난달 23일 강현면 정암리와 손양면 상양혈리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이번에 첫 모내기를 실시한 농가는 쌀 전업농 중앙연합회 부회장인 김광섭 씨(강현면, 56세) 농가와 현재 농업경영인 양양군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인섭 씨(손양면, 39세) 농가로 시기별로 적기에 농자재를 투입해 우리군의 브랜드인 고품질 ‘해뜨미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



박물관에 숨어있는 유물 이야기! <4>

신석기인들이 살았던 움집의 비밀

집을 의미하는 ‘家’ 자는 집안의 돼지를 의미하는 것. 옛날에 뱀이 자주 침입하여 뱀의 천적인 돼지를 집에 키워 이를 막으려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家’ 자가 생겨났다고 한다.

신석기시대 움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산리에서 출토된 집터의 모습은 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모래흙을 살짝 걷어 낸 다음 그 위에 진흙을 깔고 안쪽 둘레에 기둥을 4~7개 세우고 도리를 엮었다. 그 위에 서까래를 비스듬히 기대어 땅에 달도록 하고 강가에 많이 자라는 갈대를 엮어 지붕을 덮어 움집을 만들었다. 움집 들어간 집터 안 중앙에는 화덕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움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었다.

움집의 크기는 4~5명의 한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이며, 출입구 방향은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빛을 조금이라도 많이 실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다. 남향집은 여름에는 햇빛이 집안으로 적게 들어오고 북쪽으로 더 높게 뜨니 처마 천정에 가려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고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뜨니 길게 드리워 빛이 들어온다. 선사시대에도 이런 원리를 알았던 것이다.

움집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했을까?

지금처럼 벽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움집에서도 화덕을 중심으로 공간을 나누어 생활했다. 그럼 왜 화덕을 중심으로 공간을 나누었을까? 그건 화덕이 음식을 만들고 난방·조명·도구를 만들고 손질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움집 안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여자가 많이 쓰는 곳, 남자가 많이 쓰는 곳, 잠자기 위해 항상 쓰는 곳, 밤에는 쉬고 낮에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그렇게 나눈 것은 움집에서 크게 토기가 많이 발견되는 곳, 석기가 많이 발견되는 곳이 있었는데 도구가 사용 되는 특징을 볼 때, 토기가 많이 발견되는 곳은 여자가, 석기가 많이 발견되는 곳은 남자가 많이 쓰던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날씨 좋은 날 김밥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으로 소풍 나오는 것도 행복한 일 일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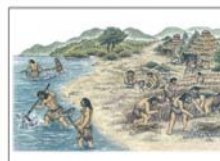
관람안내 :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 670-2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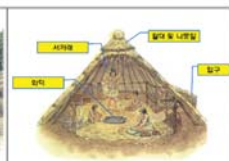
오산리유적 움집터



복원된 움집



오산리유적 생활모습



움집의 생활모습

풍습과 자연이 만들어 낸 미감각의 양양8미(味)

어부들의 습속적 애환에서 유래한 ‘섭국’

산이나 들판에 기대어 사는 산촌사람들은 육지를 떠나 밭도 달지 않는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어촌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어부들의 목숨과 직결된 서슬푸른 바다는 산촌사람들의 삶의 터전과도 같은 산이고 들판이다. 이 탓에 풍속적으로도 ‘가리지 않은 것보다 가리는 것’이 더 많은 신앙과도 같은 금기습속이 있었다. 여자가 뱃일 나가는 어부의 앞을 가로지르지 않는 것이나, 뱃일을 나갈때는 인사를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나, 아침부터 집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나, 음식에 있어서도 부정 탈 염려가 있으면 집안에도 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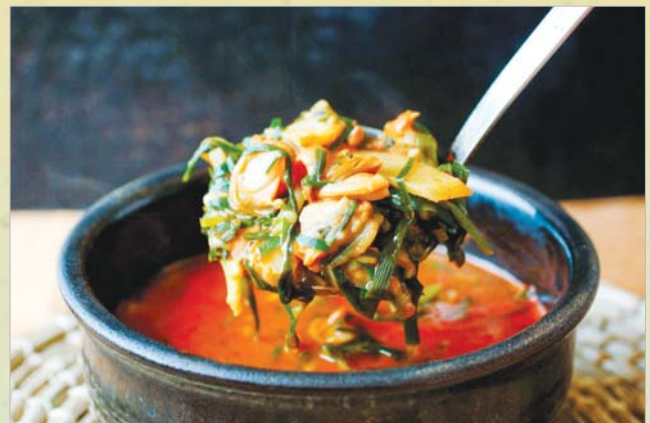
지 않을 뿐 아니라 먹지도 않았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산촌 사람들이 여름철에 하천이나 계곡에서 고된 농사일에서 오는 수고로움을 여름천렵 음식으로 개고기를 먹을수 있었던 시절에도, 뱃일을 나가던 어부들은 닭고기, 계란조차 먹지 않았다, 이러한 어부들의 금기습속에서 유래되었고, 삶의 터전에서 자라고 나는 식재료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된 음식이 바로,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섭국’이다.



황영철 강원도외식자널 대표

토종혼합을 뜻하는 ‘섭’이라는 말의 유래

양양을 포함한 영동북부 지역민들이 ‘섭’이라 부르는 토종혼합은 동해안을 비롯해 우리나라 전 해역이 서식지로, 암컷은 속살이 붉고, 수컷은 진한 미색의 색깔을 띄고있다. 하지만 붉은 색을 띠다고 토종 홍합(紅蛤)이라 하지 않는데, 지중해가 원산지로, 한국전쟁 당시, 진주만에 주둔하던 미군의 함선 바닥에 붙어 도착화된 ‘진주담치’는 엄격히 외래종이다. ‘섭’이라 함은 본래의 토종혼합으로, 홍합을 뜻하는 ‘섭’은 지역 토속어로 조각기법에서 글자나 그림을 도드라지게 하기위해 가장자리를 파내는 ‘섭새김’에서 유래된 말이다. 홍합의 조갯살이 납작한 여느 조개들과 달리, 토실토실하고 봉긋하게 솟아있는 모양이, 마치 섭새김을 해놓은 듯 하다하여 이를 빗대어 ‘섭’이라 부르게 되었다. 짭조름하면서 잔득잔득하게 씹히는 홍합은, 중국 4대 미인 <서시의 헛바닥>으로 비유하던 리비에 견줄만하고, 뽀얗게 우러난 국물은 천연 속



풀이 해장국으로도 으뜸이어서, 특히 어촌사람들이나 해사람들에게는 금기음식 대용이나 여름천렵 음식으로 ‘섭국’을 즐겨 먹어왔다.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섭국’

여름철이면 백사장에 천막을 치고, 갯돌을 괴어 가마솥을 걸고 시뻘건 장작불을 피워, 귀한 고추장 대신 집에서 담근 막장(된장)을 흥건하게 풀어 장물을 끓여낸다. 역할에 따라 ‘섭창’으로 ‘섭’을 채취해 오면, 서넛은 ‘섭살’을 발라내, 막장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면 송덩송덩하게 썬 대파와 고추, 부추, 섭살을 넣고 제피 잎사귀를 손으로 쪽쪽 찢어 넣는다. 여기에 양이라도 푸짐하게 할 요량으로 귀한 밀가루 대신 호밀가루로 반죽을 친 ‘뚜데기(수제비)’와 생미역이나 지누아리, 대박같은 해초류까지 푸짐하게 뜯어다 넣기도 했다. 간혹 토종닭 한 마리를 삶아 쪽쪽 찢어 넣은 ‘닭섭국’으로 섭국 이상의 별미를 만들어 먹기도 했던 음식의 풍속이 양양의 섭국 음식문화의 원형이다.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대

변해주는 맛과 멋이 있다. 한 지역사회에서의 음식이란 그들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삶의 문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문화적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부들의 금기음식 대용으로 먹어왔던 양양의 ‘섭국’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부엌에서 만들어져, 이어오고 있는 지금의 음식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삶의 형태나, 문화적 습속의 조건이나, 스스로 나고 자란 먹을거리를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되면서 양양의 고유한 전통음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 뜻에 따라, 몇 해 전부터 홍합 전문음식점들이 문을 열게 되면서 양양 사람들의 풍속적 습성까지 담아낸 양양의 대표 전통음식으로 ‘섭’과 ‘섭국’이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추억의 사진 한 장



그때 그 시절 통금하던 낙산해수욕장

1979년 최대 관광지인 낙산해수욕장은 자정 12시가 넘으면 군사작전으로 인해 통금이 시행됐었다. 여름 피서철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물놀이를 즐기던 낙산해수욕장이 지금은 새롭게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의 통제구역 설정 차단기는 오래 전 사라졌고, 현재는 해변에 설치된 해안경계철조망들이 하나 둘 씩 철거될 예정이다.

동해안 해안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확정

주민숙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우리지역을 비롯한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해안 경계철책이 연차적으로 철거된다.

강원도와 우리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강릉 연곡해변과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중섭 행자부장관과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13개소 5.875km의 해안경계철책 철거를 요청한 우리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안철책이 철거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대상지 결정에 따라 단계별로 철책철거를 실시하고 대체 표준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운영을 관할 군부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행자부도 이번 조치와 관련,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진하되, 철거대상 지역은 효율적으로 조속

히 철거되도록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동해안 해안경계철책 철거 확정에 따라 국방부는 철거협의 기간을 단축·간소화하고 강원도는 예산 우선 반영 등 각 기관별로 체계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해안경계철책 철거는 정문헌 국회의원이 해안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난해 정책토론회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규제완화로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240



6월 농사정보



상순 식량작물 · 원예특작 · 축산

식량작물	1. 벼 본답관리 ○ 가지거름 주기 : 이앙후 12~14일 (10a당 요소 5kg 또는 유안 10kg) ※맞춤형 비료 가지 거름 생략 ○ 병해충 방제 : 벼물바구미, 애멸구, 잎도열병 ○ 저온시 물 깊이대기 : 10~15cm 2. 친환경농법 벼농사 포장 우렁이 입식 (이앙후 3~6일내) 3. 콩 적기 파종 : 5. 20~6. 20	축	1. 담근 먹이용 옥수수 웃거름주기 : 요소 20kg/10a 2. 파리, 모기, 진드기 등 가축의 외부 기생충 구제 3. 지의 방목 및 목 이용 : 장 25cm 예취 이용 4. 소 유행성 아까바네병 예방접종 5. 소 기립불능증 질병 예찰 6. 소 부루셀라병 1세이상 암소 전 두수 검사 (연 1회이상) ※ 매주 수요일은 축사소독의 날
원예특작	1. 고추 1차 추비(정식후 25~30일) : 요소 6kg, 염화加里 3.7kg 2. 고추병충해 방제 : 역병, 담배나방, 총채벌레 3. 과수 봉지 씌우기 및 웃거름 사용 : 요소 12kg, 염화加里 8kg/10a 4. 과수 ·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 병해충 방제 (탄저병, 흰가루병, 감꼭지나방 등) ○ 감나무 원성낙엽병 적용 약제 2차 방제 5. 대파 정식 : 이랑 간격 80cm, 이랑높이 30cm 6. 들깨 종자파종	산	



중순 식량작물 · 원예특작 · 축산

식량작물	1. 벼 본답관리 ○ 가지거름 주기 : 이앙후 12~14일 (10a당 요소 5kg 또는 유안 10kg) ※맞춤형 비료 가지 거름 생략 2. 잎도열병, 애멸구, 벼물바구미 동시방제 3. 친환경 농법 포장 우렁이 관리 4. 콩 파종한계기 (6. 20), 종자소요량 5~8kg/10a	축	1. 담근 먹이용 옥수수 웃거름주기 : 요소 20kg/10a 2. 축사 및 운동장 주위 물뺄도랑 설치 3. 축사 안팎 청결유지 및 소독하기 ※ 매주 수요일은 축사소독의 날
원예특작	1. 마늘 적기수확 : 기상예보에 따라 비오기 직전 2. 과수 봉지 씌우기 : 사과, 복숭아 3. 과수 · 원예작물 병해충방제 : 감 병해충 방제 (탄저병, 원성낙엽병, 감꼭지나방 등) 4. 느타리버섯 재배관리 : 온도, 습도, 환기 적정유지 5. 표고버섯 발생 및 원목관리 : 비가림 월2회 물뿌림(2시간/회) 6. 참취 재배 포장 1차 추비 사용 : 요소 8kg, 염화加里 5kg/10a	산	



하순 식량작물 · 원예특작 · 축산

식량작물	1. 일찍 모낸 논 중간물떼기 실시 ○ 금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중간물떼기 실시 ○ 잡초 많은 논 후기방제 (유제, 수화제) 2. 잎도열병 발생기에 이화명나방, 벼물바구미 동시방제 3. 찰옥수수 2차 웃거름 주기 : 본엽 9~10매시 요소 10kg/10a 4. 감자수확 : 저장온도 1℃~4℃(예비저장-그늘에서 10~15일)	축	1. 가축의 일사병, 열사병을 막기 위한 해가림 설치 2. 배합사료를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기 3. 모기 및 외부 기생충 구제 : 방충망 설치 4. 소 기립 불능증 질병예방관리 ※ 매주 수요일은 축사소독의 날
원예특작	1. 마늘 수확 및 간이 저장 2. 과수 여름전정, 웃자란가지 솜음과 가지비틀기 3. 고추 포장 장마대비 배수 관리 4. 참깨 병해충 종합방제 (1차) 5. 표고버섯 발생 및 원목관리 : 비가림 월2회 물뿌림(2시간/회)	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 670-2701
 농촌개발 : 670-2336
 생활자원 : 670-2338
 농산물유통 : 670-2703
 축산정책 : 670-2705
 축산경영 : 670-2438



힘찬도약! 명품도시 양양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 전화 : (033) 670-2701, 670-2366

www.yangyangmall.co.kr



기술지원과

작물환경 : 670-2366
 인력육성 : 670-2337
 농업기계 : 670-2958
 원예작물 : 670-2367
 특화사업 : 670-2369
 기술연구 : 670-2368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2015.1.1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2015. 4. 30~6. 1(32일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및 양양군 세무회계과 세정부서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 또는 양양군 세무회계과 세정부서에 비치되어 있는「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시 성명, 주소,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당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6. 25~6. 30)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화신(6. 30)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안내

▶ 일몰 후부터 익일 07시 까지만 배출합니다.(금요일부터 일요일 일몰전까지 배출 금지) ◀

구 분	쓰레기 종류	배출시간	수거일	배출방법	봉투종류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소각용)	수거일 전일 일몰후부터 수거당일 7시까지	월 수 금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 (흰색)에 담아 배출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생활 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소각용) 젖은스티로폼, 벽지, 배개, 인형, 완구류, 카세트테이프	수거일 전일 일몰후부터 수거당일 7시까지	월 수 금	종량제봉투(흰색)에 담아 배출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재활 용품	종이, 캔, 병, 고철, 플라스틱, 비닐류, 스티로폼, 영농폐기물	월요일 일몰후부터 화요일 07시까지	화	종류별로 분리하여 투병비닐봉투에 담 거나 묶어서 배출	검정봉투 사용금지
대형 폐기물	현아불, 가전제품, 유모차, 각종가구류, 대형완구, 변기, 욕조, 매트리스, 가방, 거울, 액자, 고무통, 화 분, 옥매트 등	월요일 일몰후부터 화요일 07시까지	화	스티커를 읍면사무소에서 구입 후 부 착하여 배출	수수료 납부 (대형폐기전은 무료배출)
불연성 폐기물	유리, 도자기류, 화분, 타일, 화장품병, 소량 의 집수리 잔재물 등 타지 않는 쓰레기	수요일 일몰후부터 목요일 07시까지	목	불연성전용매대 (붉은색)에 담아 배출	20ℓ, 50ℓ, 100ℓ

♣ 대형 폐기전은 무상방문수거 합니다(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미터 이상)

- 대형 폐기전을 배출하려면 전화1599-0903으로 미리 예약해 주세요

♣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1회용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레기 불법소각, 무단투기,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폐기전 무상 방문수거>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미터 이상

1599 - 0903

201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확인하세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확대됩니다.
 - '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예정
 -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확정·발표('13.6월)
 - 산정특례 등 희귀·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지원 확대 추진
 - ▶ 본인 부담 경감제도: 입원 환자 20%→5~10%, 외래 환자 30~60%→5~10%
- 3대 비급여 제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17년까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단계적 축소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담 완화
 - ▶ (선택진료) 선택의사비율 현행 병원별 8%→진료과목별 2/3 수준 축소
 - ▶ (상급병실) 대형병원 일반병상 의무확보 비율 현행 50%→70% 확대
 - ▶ (간병) '15년부터 국고지원 방식 대신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범사업 전환
-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추가적용'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 지불
 - ▶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7,450원 추가 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없이 입원생활 가능
- 속초지사 윤리경영 및 청렴실천 과제 선정 지속 추진
 - 「고객감동 5대 발굴과제 선정」 및 실천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전개
 - 전직원 윤리경영 실천 및 청렴도 향상 캠페인 매월 '셋째주 수요일'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속초지사 ☎1577-1000 www.nhis.or.kr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문

○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관내 야영장업 관광사업 등록 안내

□ 야영장업 등록개요

-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대상: 관내 모든 야영장(규모 상관없음)
- 기간: 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유예기간(2015.5.31) 내 등록할 것

□ 야영장업 등록요건

- 일반야영장업: 공통기준과 일반야영장업 개별기준 모두 충족
- 자동차야영장업: 공통기준과 자동차야영장업 개별기준 모두 충족

※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개별기준

- 일반야영장업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자동차야영장업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어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 야영장업 등록은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 후 관광사업자로서 등록하는 것임.
- ※ 글램핑, 카라반, 캐빈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중(문체부)

□ 신규 등록신청 및 절차

1. 개발행위 가능여부 및 입지 확인 (경제도시과 지역계획담당 및 개발행위허가부서)
2. 인허가 원비 (상하수도 시설 및 오수정화처리 시설, 전기 시설 등)
3. 사업계획서 작성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첨부)
4. 관광사업 신청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 ※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입지에서는 야영장 조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문화관광과 033-670-2722, 2721

2015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추가 신청 · 접수

1. 사업대상
 - 양양군에 소재한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 처리
 - 보관중인 슬레이트 수거 처리
2. 신청기간 : 2015. 1. 19 ~ 사업완료시
3. 신청장소
 - 군청 : 환경관리과 자원순환(☎670-2183)
 - 읍면 : 총무담당 및 주민생활지원담당
4.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
 - ▶ 신청서 비치 : 군청 환경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5. 지원내용
 - 보조지원액 : 동(개소)당 3,360천원(지붕면적 148.7㎡ 규모)
 - ▶ 지원(보조)금액 이상 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초과비용과 지붕 씌우기는 소유자 자부담
 - ▶ 문의 : 양양군 환경관리과(☎670-2183)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간 : 2015. 5. 1. ~ 5. 31.
- 신고납부 대상자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 신고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속초세무서)
- 납부장소 : 시중은행(수협 · 농협 · 우체국포함)
- 전자납부 :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에 접속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
- 국제청홈페이지(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가능
-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033-670-2107)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강원도의 위탁을 받아 착한목자수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성폭력에 관한 위기 상담을 하는 기관입니다.

- 상담내용 :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상담 등 관련 상담소 안내 및 연계
- 상담시간 : 1년 356일 24시간
- 상담방법 : 전화, 내방, 방문, 사이버(홈페이지, NAVER 지식인)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8 3층
- 상담전화 : 033-1366
- 홈페이지 : <http://www.1366.or.kr>
- 후원문의 : 033-252-4041 / 농협 203-01-511052 (강원여성1366)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양양소식지는 군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독자 마당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의 미담이나 시, 수필 등 잔잔한 사연이나 글을 보내 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해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양소식지의 독자참여가 안정화되면 앞으로 다양한 지역소식을 전달해 전할 수 있는 해오름 기자단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jubiang@korea.kr

▶문의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670-2223

-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주민의견 수렴 인터넷 설문조사 계획

- 설문기간 : '15. 5. 15 ~ 7. 15(2개월)
- 설문대상 :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주민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1년 이상 가진 자를 말한다.
- 설문방법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홈페이지 링크 등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사항 수집 지양
- 설문내용 : 총 12문항(예산설문 6, 공모제안 1, 개인소감 5)
-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 전담 및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분야
- 도민이 필요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도민 공모제도」 운영 등
- 설문조사 결과 : 실과별 '16년 시책 및 예산 반영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 설명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를 모르거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신청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5. 6. 12(금) 10:30~12:00
2. 장 소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사 2층 대회의실
3. 참석대상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업무에 관심이 있는 시 · 군민
4. 문 의 : 서무계 ☎전화 : (033)640-1051~2
팩스 : (033)640-1058

당신의 주민신고가 국가안보를 지킵니다

간첩이나 거동수상자 발견시,

지역 내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주세요

간첩 신고 포상금 최고 "5 억 원"

신고 전화

◆ 전군 단일 주민신고번호 : 1661-1133

◆ 제102기갑여단 : 033-671-1120

◆ 국군 기무부대 : 국번없이 1337번

제 102 기 갑 여 단

수도권에서 한 시간 대, 청정휴양도시, 양양

달려보세요, 서울에서 양양까지,
수도권 전철권역 만큼이나 가깝습니다.

설악과 동해에서 푸른 숨결이 느껴지고
남대천에서 생명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양양은
미래가 더 기대되는 청정휴양도시입니다.

수도권에서 한 시간 대이면
여유로운 휴식과 건강한 웃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양양에서 대자연과 함께하는 미래를 설계하세요.

90분

서울 → 양양

양
양

Yangyang